



미 증시, 위험선호심리 회복되며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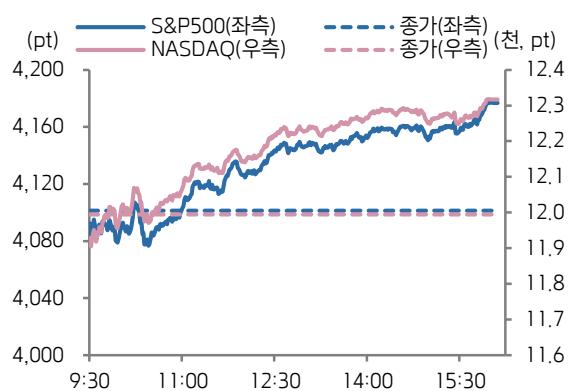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2 일 (목) ADP 민간고용 부진, 연준 부의장의 9 월 인상 중단설 반박에도, 과매도권 인식 유효에 따른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속 OPEC 의 증산 등으로 인한 점진적인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 재확산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3%, S&P500: +1.8%, 나스닥 +2.7%)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환율 영향으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단기간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으로 약세를 보이고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문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위험선호 심리를 회복하며 상승 마감. OPEC+ 회담에서 7 월에 기존 43 만 2,000 배럴에서 64 만 8,000 배럴 증산을 결정했지만, 중국 상하이 봉쇄조치 해제 및 아시아 원유 수입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유가가 상승한 점은 부담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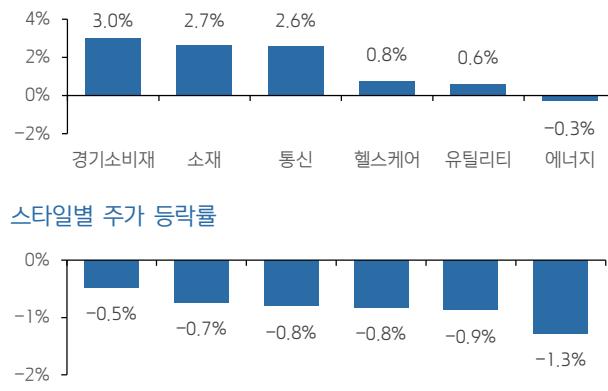
미국 5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2만 8,000명(예상치 29만 9,000명, 전월치 24만 7,000명) 증가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하회함. 미국 4 월 자본재 수주는 전월대비 0.3%(예상치 0.6%, 전월치 1.8%) 증가하며 예상치를 하회. 전일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이며, 향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6 월, 7 월 FOMC 에서 50bp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를 중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176.82	+1.84%	USD/KRW	1,252.07	+0.5%
NASDAQ	12,316.90	+2.69%	달러 지수	101.82	-0.66%
다우	33,248.28	+1.33%	EUR/USD	1.07	+0.01%
VIX	24.72	-3.78%	USD/CNH	6.66	+0.05%
러셀 2000	1,897.67	+2.31%	USD/JPY	129.87	+0.02%
필라. 반도체	3,157.98	+3.5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490.61	+2.08%	국고채 3년	3.123	+9.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420	+9bp
Eurostoxx50	3,795.13	+0.95%	미국 국채 2년	2.630	-1.2bp
MSCI 전세계 지수	656.45	+1.32%	미국 국채 10년	2.908	+0.2bp
MSCI DM 지수	2,814.03	+1.5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61.44	-0.6%	WTI	117.49	+0.53%
MSCI 한국 ETF	68.60	+1.46%	금	1872.7	+0.0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7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7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42.3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미국 증시 반등에 따른 국내 위험자산선호심리 회복 가능성

주요 체크 사항

2. 역외 원달러 환율 급락이 국내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

3. 미국 고용지표, 국내 휴장(6일)으로 인한 장중 관망심리 심화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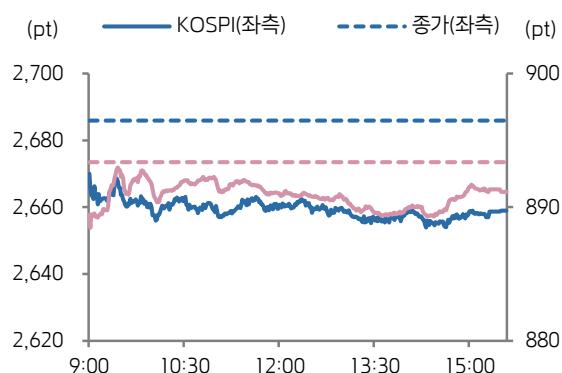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일간 단위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경제지표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 상으로 시장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모습.

일례로 5 월 ADP 민간고용(12.8 만건, 예상 24.0 만건)이 부진하게 발표됐다는 점은 고용 수요 둔화로 임금 인플레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도 높일 수 있는 요인. 또한 OPEC 등 산유국의 증산(43.2 만배럴→64.8 만배럴, 약 50% 상향) 소식은 향후 공급 증가로 인한 에너지 인플레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그러나 미국의 원유재고(-507 만, 예상-50 만)가 큰 폭 감소했다는 점은 미국 내 원유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국의 경제 재개에 따른 이달의 수요 확대까지 감안 시 원유가격의 하향 안정세는 어려울 수 있음. 또한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9 월 금리인상 중단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인플레 문제로 연준이 쉬어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는 등 연준 내에서도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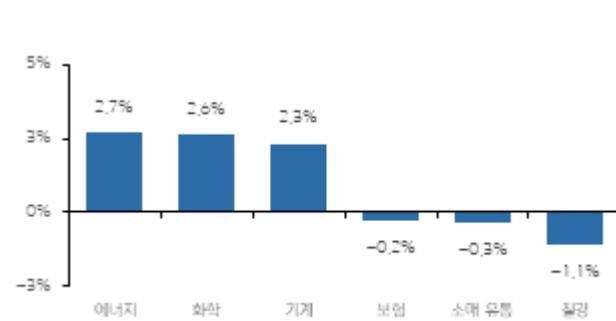
이는 시장의 악재(인플레이션, 긴축, 침체 등)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현상이며, 향후 상기 이슈들에 대해 시장 참여자 간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지난달 말 이후 주요국 증시가 저점을 높여가며 반등하는 모습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현재 시장은 기존 악재들을 가격 조정을 통해 상당부분 반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신규 돌발 악재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현재 지수 레벨은 매도가 아닌 보유 혹은 매수 대응의 영역이라는 기준 당사 전망은 유효하다고 판단.

이상의 내용을 감안 시 국내 휴장 기간 동안의 미국발 악재가 반영되며 하락세를 보였던 한국 증시는 금일 미국 증시 반등 효과, 증시 바닥권 인식, 지난 5 월 수출(21.3%YoY, 예상 19.3%)에서 확인된 국내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전망. 최근 일간 등락폭은 커지긴 했지만, 한때 1,300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현재 역외 1,241 원대)은 외국인 수급 상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줄 것으로 판단. 다만, 금일 밤 발표 예정인 미국의 5 월 비농업부문 고용, 6 월 6 일 국내 휴장 상황을 고려 시 장중 관망심리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증시 상단은 제한될 가능성 존재.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